

- 1.주일:** 오늘은 대림절 네째주 주일이고,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 2. 성탄감사예배:** 성탄감사예배를 위해 준비해주신 교회학교와 청년들 어른들께 감사드립니다. 점심식사후 크리스마스 쿠키 데코레이션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 3. 모임안내:** 임원회 모임은 12월30일 주일예배후 모입니다.
- 4. 예배안내:** 다음주 12월30일 2018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31일 월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 5. 교인총회안내:** 2019년 1월 6일 주일은 전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같은날 신년하례식도 있습니다.
- 6. Stop Hunger:** 1월12일 토요일 오커스트 UMC에서 푸드뱅크 포장이 있습니다.
- 7. 2019년 달력:** 2019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탁상용과 벽걸이용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각각 1개씩 가져가시고, 전도용 선물용으로도 가져가세요
- 8. 식탁교제:** 오늘은 말씀4속, 기쁨5속 입니다. 찬양1속이 준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 북가주 목회자 가족수양회 :** 12월25일(화)-12월27일(목)까지 레이크타호에서 있습니다.
- 10. 새벽예배안내:** 이번주 새벽예배는 12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행사 일정 안내

12월2일 대강절 첫주	1월6일 교인총회및 신년하례식
12월9일 대강절 둘째주	1월13일 속회지도자교육
12월16일 대강절 셋째주	1월20일 임원교육 (전교인)
12월23일 대강절 넷째주	1월29일-31일 Gathering of the order
12월24일 성탄전야및 교회학교	
12월25일-27일: 북가주 목회자 가족 수양회	
12월30일 송년주일	
12월31일 송구영신예배	

은혜와 진리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1:14)

고등학교때 교회 형들 중에 “레슬링 선수”를 하던 형이 있었고, “공고 토목과”에 다니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님들은 늘 자기편들과 함께 세력다툼(?)을 교회에서 하기 일수였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동생들에게 왔고, 가끔 무서워서 교회를 안갔으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두 형님들이 번듯하게 자랐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안하고 교회봉사를 열심히 하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중 레슬링을 하던 형은 “용인대”에 진학해서 CCC 활동을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함께 교회학교를 봉사하던중 미모가 뛰어난 교회누나가 교사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소위 “한눈에 반한 사건(?)” 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 누나와 가깝게 보였는지 그 형이 소개를 시켜달라는 말에, 저의 냉정한 반응이 그 형의 가슴을 후려 쳤습니다. “형, 눈이 너무 높아~! 좀 낮춰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게 그 형의 서운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어릴적 당한 고통(?)에 대한 소심한 복수였을지도 혹은 진심 맞지 않는 상대라고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어느날 이 형님이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보이질 않아서 수소문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운동으로 간것도 아니고, 경제학을 공부하러 갔다는 이야기에 조금 의아해 했는데, 몇년이 지났는데, 박사과정을 공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저의 자극(?)적인 직언(?)으로 삶에 변화가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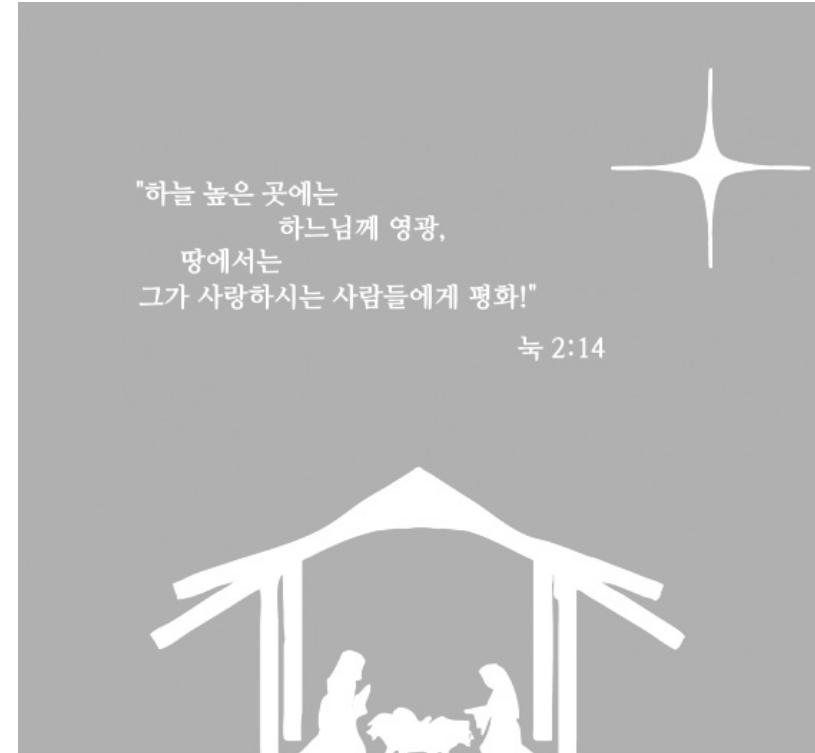
사실 저와는 상관없이 그 형에게는 특별한 “비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떠났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감정적 영역이고, 진리는 이성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 이성과 감성이라는 영역이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냉정한 잣대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을 지혜롭다 하지만, 신앙은 불확실함과 비 이성적인 영역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는 훈련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확실한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선택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믿을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영역으로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두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될꺼야?는 더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너머의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교회포어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예배 공동체(신 1:21-22)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www.fkumc.net



FRESN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주일예배 Sunday Service	12:30 pm
	교회학교 Sunday School	12:30 p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06:00 am T-S
	중보기도회 Prayer meeting	11am Th
	트리니티성경공부 Trinity	10am Tu
23-51호		
2018년12월23일		4pm Sat

주일예배 Sunday Worship

대리절 넷째주/ 보라색, 성탄주일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와 고백

알림과 나눔 Announcement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 입례송 Anthem / 찬송가 115장

❖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 119. 성탄절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Gloria Patri / 3장

기도 Prayer / 김은정 집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누가복음 2:11-14

성탄감사 : 1) 교회학교및 유스 2) 찬양(멜라니) 3) 성탄특송 4) 피아노, 바이올린협연

설교 Sermon / 김규현 목사

세가지 이야기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찬송가 104장

❖ 봉헌 Hymn / 1장(1장)

교제및 환영 Welcome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Closing Hymn / 주기도송

❖ 축도 Benedicton /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배위원 Worship Leader

예배위원은 예배전 30분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회중기도	성경봉독	애찬당번	애찬봉사
12월23일	김은정 집사	이수경 집사	말씀4속, 기쁨5속	말씀4속, 기쁨5속
12월30일	최미란 집사	김은정 집사	찬양1속	찬양1속
01월06일	김숙진 권사	최미란 집사	사랑2속	사랑2속
01월13일	박준희 권사	김숙진 권사	희망3속	희망3속
12월안내	이수경	12월 촛불/ 성찬	김의숙	

감사와 기도제목 나눔

Thanksgiving and sharing prayer concern

매주 헌금함에 감사와 기도제목을 넣어주시면 주보와 중보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합니다.

-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
-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생활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 교회학교와 교회일정을 위해
- Cal-Nevada Annual Conference와 감독 감리사들을 위해
- 프레즈노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 파라다이스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서
- 주님이 먹이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12월생일: 김현덕(12/24), 김형기 (12/13)

지난주 봉헌과 통계 Offering and Statics



예배 Worship	주일	새벽	모임	합계
	34	6	0	0
헌금 Offering	일반헌금		특별헌금	합계
	\$2,205.00		\$900.00	\$3,105.00

이번달 속회현황 보고 Class meeting report



속	속장	인도자	모인곳	모일곳	인원	헌금	모인월
찬양 1	김규현	김규현	김형태	김삼순	8명	\$90	11월
사랑 2	김현덕	장영심	김보흠		4명	\$60	10월
희망 3	안미나	홍윤기	홍윤기	안광빈	7명	\$120	8월
말씀 4	이수경	이수경					
기쁨 5	홍윤정	김규현	김형기	김규현	9	\$50	10월

대림절 묵상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와 함께하는 대림절 묵상
새벽예배 / 기쁨의 언덕 누가복음